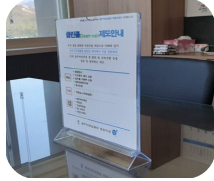




간추린 청렴 소식

[1] 장흥지청, '클린콜 제도 안내문' 비치

장흥지청(지청장 박규형)은 '20. 4. 검찰 클린콜 제도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고 민원인 대기실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검찰 청렴 제도 홍보를 통해 투명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는 장흥지청을 응원합니다 ☆

[2] 김천지청, '청렴업무 전담팀 간담회' 개최



김천지청(지청장 이준엽)은 '20. 3. 24. ~ 25. '1분기 청렴 업무 전담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 청렴도 향상방안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검찰 메신저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하네요~

[3] 청주지검, '1분기 청렴퀴즈 이벤트' 실시

청주지검(검사장 최경규)에서는 '20. 3. 공무원 행동강령을 내용으로 '1분기 청렴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에게는 검사장 격려가 있었다고 하네요 ^^

[4] 안동지청, '청렴 명언 현관 LED 전광판 게시'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에서는 '20. 3. 청렴 명언을 선정하여 '청사 현관 LED전광판'에 게시 하였습니다.

'내가 지킨 맑은 양심 청렴사회 다가온다' 안동지청의 청렴의지가 대내·외에 널리 전파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칭찬합니다

'20년도 1분기 클린콜 우수 직원' 선정

'20. 4. 17. 대검 검찰부 클린콜센터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기록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대구고검 최은영 대구서부지청 정기숙
김천지청 황주섭 장흥지청 장안나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 이렇게 친절하고 훌륭하신 분은 처음 보였습니다.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고도 "다른 업무가 있어 더 신속히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하니 택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준비된 사람은 없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죠."

영화 '유스(Youth)' 中



5월의 추천 영화

유스

(2016년 개봉 / 감독 파올로 소렌티노)는

은퇴 후 의욕을 잃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세계적 지휘자 '프레드 벨린저(마이클 케인 분)'가 휴가를 위해 머물던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열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위 대사는 영화의 등장인물 중 새로운 배역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선택을 주저하는 영화배우 지미 트리(폴 다노 분)에게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니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념을 위해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대사입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이른 새벽 인적이 끊긴 길가의 빨간 신호등,
가족과의 저녁 약속시간, 친구에게 빌린 오백 원짜리 동전,,,
이따금 이런 약속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지나치거나, 늦거나, 잊어버린 일이 있으신가요?

일상 생활 속 규율이나 작은 약속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작은
신뢰도 줄 수 없는 자신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신의를 중요시했던

조선시대 청백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호조판서로 재직할 시 당대 최고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리고, 정조 때 우의정을 지낸 **청백리 정홍순(鄭弘淳,
1720-1784)**은 매사에 근검 절약을 실천하였으며
공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두 개의 입모
(笠帽, 비가 올 때 갓이 비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덮어 쓰는 물건)를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갑작
스런 비로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 모
[사진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어느날 동구릉에 행차하던 영조의 행렬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정홍순은 옆
사람이 입모가 없어 탄식하는 것을 보고 하나를 빌려
주며 꼭 돌려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결국 찾아오지 않았고
정홍순은 혹시나 돌려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알아
둔 그의 집으로 가서 입모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 오랜기간이 지나 호조판서가 된 정홍순에게
새로 임명된 좌랑이 인사를 왔습니다. 낮이 익어 보니
그 때 입모를 빌려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정홍순은 **"그대가 입모를 돌려주지 않았으니
그 신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며 그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약속만이 신뢰를 가져다 주는것은 아닙니다,
신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신의를 지키며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문헌 :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16.10.22. 진한엠엔비)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스웨덴
국세청이 오랜 자기 혁신의 결과 얻게 된 **국민의
_____는(은)** 기관의 업무와 활동이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기관의 가장 큰 자산**
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① 행복 ② 신뢰 ③ 기쁨

※ **힌트** : Monthly청렴 2020년 4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20. 5. 18.까지
-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4월 정답은 **③ 이육사** 였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축!
당첨

최○○(춘천), 유○○(서울중앙), 김○○(의정부),
서○○(강릉), 송○○(부산고), 고○○(제주), 남○○(울산),
장○○(서울북부), 전○○(대검), 김○○(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열람등사 민원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민원인이
와서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왔다"고 하자 담당
자는 저에게 이유 설명도 없이 그 분 민원을 먼저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상담 중 먼저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 생겼다면
민원인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처리해야겠습니다.

열람등사 처리절차와 소요시간은 물론, 인지 구입 방법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불편한 부분 없이 잘
처리 되어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성남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세심함을
칭찬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